

# May of Pangasinan

## 필리핀팀의 5월 이야기



라운아띠 11기 필리핀 팡가시난팀 5월 보고서

정수진 | 김민재 | 백수민 | 김솔이 | 김태수

Daisy | Joshua | Min | Sole | Tony  
Gregoria | Jose | Miranda | Soledad | Antonio



# FRIENDS OF YMCA PANGASINAN

---

팡가시난 YMCA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아띠들과 동고동락 해온 Y식구들을 소개합니다!



Alen



Marvin



Mommy Julie



Bobby



Darwin



Romeo



Kuya Eladio



Richard



Emer



Kuya Jimmy



Y Staffs



Y Hotel 직원 및 기타등등



Mohn



Marlou



Y Volunteers



Jeremy



Din



Arnel



Y Scholars

YMCA OF PANGASINAN

# Dumpsite

---

덤프사이트



# DUMPSITE

## 첫 번째 이야기. ATTI CLASS 그리고 분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식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운영하는 Class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 하는 정도와 수준이 달라서 다양한 연령(3~12세)의 아이들을 하나의 반으로 묶어서 수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알파벳을 배우는 Basic English반과 기본 회화를 배우는 Common English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공부보다는 몸에서 뚫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꼬마 아이들을 위한 예체능반. 분반을 하니 자연스레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고, 부모님께서 바쁘기 때문에 스킨십하면서 놀아줄 사람이 부족했던 꼬마아이들은 예체능반에서 아띠들과 뛰어 놀고 살을 부대끼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런 면을 보면서 ‘진작 분반을 할 걸...’하는 생각도 했으나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아이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 됐기 때문에 지금의 분반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꾸준히 Class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하는 생각과, 현재의 분반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수업을 더 많이 진행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 DUMPSITE

## 첫 번째 이야기. ATTI CLASS 그리고 분반

### 중간평가 이후 CLASS의 변화

중간평가 이후 Dumpsite에서의 아띠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활동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여 Dumpsite에서 주민, 청년들을 새로이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커뮤니티로 처음 발을 댄 건 '솔이'였다. 다른 팀원들은 기존에 지속해오고 있던 Class에 집중하기로 했고, 솔이는 Class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의 이곳 저곳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솔이 이야기 시작!*



커뮤니티에서 청년들, 아이들의 부모님, 어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창 Class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든 설득해서 Class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끝내 데려갈 수 없었을 때의 아쉬움과 그리고 의문들이 가득했지만, 역시나 짧은 평가시난어로 인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흥미를 잃은 아이들을 다시 Class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아띠들이 풀어가야 할 새로운 숙제인 듯하다.



# DUMPSITE

## 첫 번째 이야기. ATTI CLASS 그리고 분반

커뮤니티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마을의 가족관계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부족한 언어실력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사용하며 진땀을 흘리는 나에게 의자를 내어주며 귀 기울여주는 마음들에게 너무도 감사했다. Dumpsite에서 태어난 청년들 혹은 Dumpsite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 곳을 찾아온 청년들. 삶의 시작은 달랐지만 한 데 모여 일상을 나누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다웠다. 나의 방문에 낯설어하던 주민들도 내가 그들의 친구 혹은 가족들과 친구(?)임을 발견한 순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주로 마을의 집 근처에서는 언니들, 어머니들을 만났고 Dumpsite의 중심, 주변부에서는 청년들을 만났다. 가족이야기를 들려주고, 애인을 소개해주고, 커뮤니티 밖의 소식들과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의 짧은 평가시난어에도 폭소하며 맞장구도 쳐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쓰레기를 담은 트럭들이 들어올 때면 청년 대부분이 곧장 뛰어나가야 해서 말없이 앉아있는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엄마들도 나에게 자신의 아이를 먼저 안겨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서 왜 이제 서야 이들을 마주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였다. 늘 주민들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던 건 정작 나였으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버린 활동의 틀 안에 갇혀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운 주민들을 못보고 멀리했던 건 아닌지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 Dumpsite가 내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이 사람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싶다.



# DUMPSITE

## 두 번째 이야기. Sandwich feeding program

지난 4월은 마켓에서 구입한 비스킷으로 Feeding program을 운영했다.

하지만 비스킷으로는 영양가가 부족할 것 같아 샌드위치로 변경하였다. Feeding을 하면서 언니, 오빠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고 아이들도 비스킷 보다 정성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더 좋아하는 듯 보였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만들 때마다 흐뭇하다. :D

## 세 번째 이야기. 이제 개학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6월 2일부터 새 학기 시작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오전활동시간을 미뤄 오후에 갈지 주말에 갈지 고민했었다.

오후나 주말에 가자, 가던 시간대로 가자 등등 여러 논의 끝에, 나이가 어리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원래 가던 시간에 맞춰가서 class를 지속하기로 했다.





# DUMPSITE

## 네 번째 이야기. 씻는 장소 변경

5월 초,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다보니 어른들에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피드백을 받고 씻는 장소를 두 마을의 중간지점인 블루하우스 펌프에서 오른쪽 마을 안에 있는 펌프로 옮겼다. 마을 안에 있는 펌프로 옮기면서 인사나 말도 이전보다 한, 두 마디라도 더 하고 싶었고, 왼쪽마을 아이들도 오른쪽마을에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장소를 바꾼 후 우린 더욱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

## 다섯 번째 이야기. 교육공간 보수

개방되어 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원두막(Kubo). 수업을 할 때마다 조금 더 교육공간이 갖춰져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교육공간인 원두막(Kubo)을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선부르게 원두막(Kubo)를 보수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MoonAff  
Friends  
of  
Asia









# PUGARO

---

푸가로

# PUGARO



4월에 이어 우리는 Pugaro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 program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Bangus festival과 잦았던 공휴일 등으로 인해 지난 한 달간 program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5월에는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데... 아이들이 오기만을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던 우리는 직접 집을 방문하여 Program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고, Sole 단원이 주축이 되어 Program 시작 전 아이들을 학교로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4월 첫 날과 같은 활발한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남은 날들 동안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5월 29일을 끝으로 수업을 마무리 했다.

##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Pugaro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을 속에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함께 Program에 참여했던 Y친구들과 코디네이터, 그리고 5월 중순 Pugaro를 방문한 한국 사무국의 '라온아띠와 마을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대한 feedback을 받은 후 우리는 아이들과의 program에 초점을 두느라 잊고 있었던 마을 어른, 청년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PUGARO

## 첫 번째 이야기. 아미들에게 Summer program이란?

*각자 머릿속에 그렸던 'Program'의 모습이 현실에서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느꼈던 이질감, 잘 활동하지 못한 것만 같은 느낌, 엉켜있는 느낌,  
'Program'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아이들에 반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느꼈던 미안함....*

이런 감정들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Pugaro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우리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마을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로 '일'하러 가는 듯한 부담을 느꼈고, 이런 우리의 감정이 혹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진 않았을까?

하지만 'Pugaro'에서의 활동이 우리를 마냥 힘들게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Program을 떠나 마을 안에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잘 놀다 왔던 날'은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매우 따뜻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덮에 스스로 걸려서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 PUGARO

## 두 번째 이야기. Raonatti 그리고 Community...

**활**동도 활동이지만 마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 한 달 이었다. 마을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고, 중간평가 기간에는 심지어 “마을을 거닐기만 했지 정작 마을사람들과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따끔한 한국 사무국의 feedback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전에 염려했었던

‘혹여나 외국인이 인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한국말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걱정이지 않았을까?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한국 사무국의 이러한 feedback은 지난 한달 뿐만 아니라 3월부터 지금까지의 Pugaro에서의 우리의 모습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 PUGARO



## 두 번째 이야기. Raonatti 그리고 Community...



큰 오빠 Antonio의 한마디

*하지만 팜팀! 기운내자!*

*긴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 활동을 본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후회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되 이것도 순서이려니 생각해보자!:)*







DepED PUGARO INTEGRATED SCHOOL  
DAGUPAN CITY



CLOSING PROGRAM  
MAY 24, 2014



# MIDTERM EVALUATION

---

중간평가



# MIDTERM EVALUATION



## 5.17~5.28 (총 12일간)

- 17일 안양 YMCA 문홍빈 총장님, 김유철 간사님 도착.  
    평가시난 Y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 18일 Kuya Pabs, 평가시난 Y 식구들, 문홍빈 총장님, 김유철 간사님과 함께 Atti house 방문.  
    문홍빈 총장님과 김유철 간사님과 함께 Tondaligan Beach 방문  
    라온아띠 사무국 정동민 간사님, KB 국민은행 김병재 차장님 도착  
    중간 보고회 준비
- 19일 Pugaro 방문 -> 브리가다 에스켈라 OT 참여 및, Pugaro 아이들과 노래 공연  
    중간 보고회 진행.  
    평가시난 Y, President Abalos, Kuya Pabs와 함께 저녁식사
- 20일 **문홍빈 총장님 오전 소천**  
    장례절차 확인 및 일정 연기
- 21일~22일 문홍빈 총장님 장례식 및 시신 운구.  
    문홍빈 총장님 추모 영상 제작.
- 23일~26일 휴식기 ( Ilocos Notre, Ilocos Sur )
- 27일 정동민 간사님과 함께 Dumpsite 방문.
- 28일 정동민 간사님 한국으로 귀국.



# MIDTERM EVALUATION

## 첫 번째 이야기. 평가시난 팀에게 있어서 중간평가란?

### 중간 평가의 의미

- 라온아띠의 삶의 중간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다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
- 생활에서 무료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아띠들에게 다시 한 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중간 보고회 준비와 개인 면담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
- 평가시난 YMCA, 안양 YMCA, 라온아띠 사무국, 그리고 KB 국민은행이 바라보는 라온아띠가 모두 다른 입장이었고,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 또한 중간 평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 다른 입장에서 라온아띠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띠들도 중간평가를 통해서야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 MIDTERM EVALUATION



## 두 번째 이야기. 문홍빈 총장님 소천



20일 오전, 평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시던 문 총장님.  
깊은 밤 문 총장님은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나셨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신 채로,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져 울었고, 또 울었고,  
보내드리기 참 힘들었습니다.  
공동체, 마을 만들기, 그리고 항상 강조하시던 ‘사람’.  
안양에서 우리를 배웅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공동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문총장님의  
모습.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 또한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사람’을 위해 사셨던 문총장님.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편안하게,  
그 환한 웃음 지으시며 쉬시길 바랄게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MIDTERM EVALUATION



## 세 번째 이야기. 휴식기

일정 23일 ~ 26일

장소 Ilocos Norte, Ilocos Sur

### 아미들의 휴식기

문 총장님 소천으로 인해 바로 활동지로 돌아가기 어려움을 느꼈던 팡가시난 YMCA, 라온아띠 사무국, 그리고 라온아띠들은 총장님을 추억하는 휴식기를 가졌다.

# YMCA



**Welcome to Pangasinan!**  
KB KookminBank / NCY KOREA / Anyang YMCA  
Korea Bank / Daewoo Bank / Hwanghan Motor, Yoonchun Kim  
MAY 17 - MAY 21, 2014



**SUZUKI**  
SALES

COM  
OF YMCA  
KIM  
RAIK  
SUJIN  
7 5, 2014

TAYO!

RESERVED FOR  
YMCA



PANGASINAN  
YMCA













# ESSAY

---

개인에세이

# DAISY



## 괜찮았지만, 괜찮지 않았던 지난 날

중간평가를 위해 방문한 동민간사님과의 개인 면담 시간. “어떻게 지냈니?” 라는 물음에 선뜻 잘 지내고 있었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게 지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게 지낸 것 같기도 해요.”*

나의 이 대답은. 지난 5월, 아니 어쩌면 3월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의 나의 마음이 한마디로 축약돼 표현된 문장일지도 모르겠다.

겉으로 보기엔, 난 정말 괜찮게 지내고 있었지만

그 겉을 둘러싼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 내봐도. 사실 나는 이곳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관계(현장에서 의 활동과 그 활동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생활, 팀원들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 방황하며 뜬구름 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이곳에서

내 몸이 힘들고 지치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실은 한국에서 바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 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냥. 잘 놀면. 될 것을!*

기쁜 일이 있을 땐 그냥 잘 웃고 잘 떠들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땐 버럭 성질도 내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평평 울어도 보고

*물 흘러가듯. 그렇게 지내면. 될 것을!*

# DAISY



Dumpsite와 Pugaro에서의 활동을 정리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곳에서 했던 ‘활동’들에 있어서는 분명 아쉬운 마음이 든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진짜 잘 ‘놀다’올 것을/사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따르고 좋아해 주는 아이들을 더 사랑해줄 수 있었는데,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 없이 미안해지기도 한다.

Pugaro나 Dumpsite 아이들 이외에 그 곳 청년,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Y Volunteer들이나 scholar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내가 조금 힘든 날일 지라도, 조금만 더 으쌰으쌰 해서 사람들에게 웃으며 다가갈 것을, 먼저 말 걸어 볼 것을, 반갑게 인사할 것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도 내가 이 곳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스스로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게 막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결국 다 내 탓인 것이었다고 나를 한없이 질책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남은 2달이라는 시간동안 더 이상 후회 남지 않게 잘 살면 되잖아. 그럴 수 있게 됐잖아 라고 애써 나를 위로하고 싶기도 하다.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라운아띠를 지원서를 써내려가던 그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리라.

남은 날들이 더욱 기대되고 설레고 기다려지고 내 가슴이 다시 벅차오르게 될 수 있었으리라.

# DAISY



## 다르다는 것

이곳에 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 같은 언어를 쓰는 팀원들과조차도 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었고, 다른 언어를 쓰는 현지 친구들과는 그 소통이란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힘들었다. 내가 A를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A'도 아닌 전혀 다른 B로 이해하곤 했고 난 이 모습을 "아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라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그저 도피해버릴 때도 많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니, 절대적인 '다름'과 절대적인 '같음'은 없었다. 우린 서로 다르면서 때론 같았다. 그래서 슬프기도 아프기도 했지만, 그랬기에 즐거울 수 있었다. 평탄하지만은 않았기에 더 느끼는 것이 많았고, 더 배운 것이 많았다.

## 갑작스러운 이별 . 그리운 문 총장님

조금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혹시나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살아계시진 않았을까... 너무나도 죄송스러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한 동안 이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나는. 그리고 우리 팀은 그대로 주저앉을 것 만 같았다. 시간이 흘러 결국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지만 다른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하고 감정이 잘 정리 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완벽히 초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살아생전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슴속에 잘 새기고 추억하며 살아가면 그걸로 된 거라 애써 내 자신을 위로 하고 있지만 문득 문득 그분의 따스한 웃음이, 목소리가 그리워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가 보다.





## 관계 속의 5월

2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누구나 그렇듯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마련이다. 관계 속에서 지내며 무수한 상황을 마주하고 무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 이것은 라온아띠를 말한다. 2월 아시아의 좋은 친구가 되기 전 나는 나와 나, 그리고 나와 팀원부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속한 팀부터 좋은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아시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출발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3월 달 이곳에 와서 나는 한 친구에게 마음을 달게 되는 상황이 왔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때 바로 우리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풀었으면 더 좋은 상황이 왔을 것이다. 아쉽게도 세 달이 지난 지금 중간평가를 기점으로 결국 나의 감정을 속일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중가평가단이 왔을 때 간사님은 나에게 "네가 아무리 현장 활동, Y 사람들과 지내는 것, 여기 생활이 재미있으면 뭐하냐고, 마음 한 구석은 시리고, 허하고, 아픈데"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달힌다는 것은 어찌하면 정말 슬픈 것이다. 마음의 무엇인가 쌓인다는 것은 더 무거워지고 짓누르기 전에 풀고 빠져나와야 함을 말하는 것 같다. 풀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푸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더 풀기 어려워진다는 것도 알았다. 세 달이 지나 어렵게 달혀 있던 마음을 풀고 이야기를 하며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맺은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중간평가 이후 Community 관계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Class나 아이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있었고 마을 Community의 어르신들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실 나는 현장이라 함은 우리가 Dump site나 Pugaro 현장에서 살아야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이웃 친구처럼 노는 것 이라고 생각을 했다. 현장을 어떤 구역처럼 정해버리니 살러가는 것이 아닌 일을 하러 간다는 느낌을 받은 날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도착해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혹시나 마을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다.

# TONY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시간이든 내 삶 자체를 현장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절대 달혀있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을 뿐 열려있었다. 그 이후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활동하러 가는 곳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그냥 내 삶 자체를 현장이라고 생각하니 어느 곳에서든 웃는 얼굴로 밝게 인사부터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며 잘못도 하고, 후회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알렌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 간사님도 느낄 만큼 나는 알렌이 개인 홈스테이를 가기 전 우리를 대하는 것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다. 이야기를 들은 바로 사적인 힘듦이 공적 영역으로 표출이 된 것이다. 난 이것이 매우 아마추어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해는 한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적인 힘듦이 공적인 영역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컨트롤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한다. 세 달 동안 그와 지낸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있기에 그러한 그의 모습이 서운하고 아쉽지만 지금은 서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안양 사무총장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허망했다. 짧게 만난 인연이기에 더 아쉬웠다. 더 많이 듣고 싶었고, 더 많이 나누고 싶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지만 총장님은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신다. 그래도 우리에게 해주셨던 강렬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달을 볼 때면 아직도 흰하게 잇몸 보이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선하다.

이 와중에 한 가지 가슴 뛰는 일이 있었다. 한국 돌아가서도 이쪽 일에, 이쪽 가치를 두고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쪽 가치라 함은? 나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 개인면담에서 간사님은 네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으로 인해 더 크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도 응원을 해주셨다. 한국 가서도 꼭 이쪽 일은 아니더라도 이쪽 가치를 두고 살 것 같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니 가슴이 안 떨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한테 너무나 기대되고 내 모습이 궁금하다. 내가 겪었고, 내가 느꼈고, 내가 고민했고, 내가 생각한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다 배움인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 원래 나는 한 호흡에 걸쳐서 글을 주루룩 써가는 스타일이고 쓰고 나서는 잘 고치지도 않는 성격인데, 몇 번 이고 지우고, 다시 쓰고, 무얼 먼저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에세이를 쓰다가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하고, 팀원들에게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 나에게 5월은...?

5월의 일정은 본래 특별한 것 없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일정이었다. 덤프사이트의 분반 시작, 푸가로에서의 일정 마무리 등등... 활동지에서 조금씩 변화한 우리의 활동 내용과 약 3박4일간의 중간평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반복되는 일상과 활동. 팀원들과도 이야기하면서 5월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생각을 했었다. 조심스럽다. 5월 보고서를 준비하면서도 팀원들과 어떻게 써야 할 지를 고민 하였고,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 역시 5월의 많은 내용들, 특히나 문 총장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담아야 할지 참으로 조심스럽다. 시간의 나열 순서대로, 일기형식으로 에세이를 쓸까 하고 열심히 쓰다가 모두 지워버리고 다시 에세이를 붙잡고 있다. 내게 있어서 2014년 5월은 정말 많은 생각, 고민, 그리고 경험들을 하도록 해준 시간이었다.

## 이별

5월 20일 문 총장님과의 믿을 수 없는 갑작스런 이별. 그 전날 둘이서 함께 필리핀에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서나 내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떠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와 관련된, 게다가 그 전날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던 소중한 분과 갑자기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장례식에서, 총장님을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공항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총장님 추모영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내가 문 총장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방법은 당신께서 항상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고 삶에 녹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JOSHUA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마을 만들기... 문 총장님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돈다.

문 총장님이 돌아가시고 이틀 뒤였다.. 꿈에 키가 정말 크신 분이 새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셨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분명 총장님이셨던 것 같다. 꿈에서라도 아직 내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걸까? 총장님이 너무 보고 싶다. 안양에서 약 한 달간 살아가면서 보았던 따뜻하고 밝았던 그 미소가 너무나 그립다.

## 관계

중간 평가 이후, 아니 사실 중간 평가 전부터 팀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 했었고, 그것에 대해 다 같이 느끼고 이야기 했던 적도 많았다. 처음 같지 않은 침체된 분위기, 형식적으로 보였던 매일의 나눔, 의욕이 앞서 기보다 언제부턴가 어떻게 어떻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꾸역꾸역 넘어가는 듯한 회의시간.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 고민 하고 이야기하고 엉켜버린 관계를 풀어낼 열쇠가 필요했었다.

중간 평가 이후, 그 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엉켜있던 관계를 조금씩 풀어갈 실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관계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 라온아띠. 나는 라온아띠로 온 것인데, 정말 좋은 친구가 되자는 마음으로 이곳 필리핀에 온 것인데 정작 내가 우리 팀원에게 좋은 친구였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자문한다면... 글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태수형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팀에서조차 좋은 친구가 아닌데, 우리의 활동지에서 웃고,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내가 우리 팀에서 좋은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라온아띠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길었던 중간평가를 마친 이후, 팀, 관계, 그리고 라온아띠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직 솔직히 말하자면 머릿속의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에세이에도 뭐라 담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고민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게 해 줄 것이다.



## 5월의 마무리

이번 에세이는 특히나 다시 읽어봐도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매끄럽지도 않고, 잘 다듬고 싶어도 다듬어지지 않는다. 6월은 말라시킴으로 향하게 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게 된다. 5월이 끝나고 6월이 오는 이 시점에서 가장 생각이 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관계' 인 것 같다.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관계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친하다는 것' 그리고 '친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고민하자면 진정한 '아시아의 좋은 친구, 라온아띠' 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관계를 맺고, 팀원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의 활동지는 푸가로나 덤프사이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앉아서 에세이를 쓰고 있는 이 아띠하우스가 가장 중요한 무대이며, 관계 맺어야 할 대상 또한 푸가로의 아이들, 덤프사이트의 주민들 뿐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내 팀 동료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6월에는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까? 또, 우리 팀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라온아띠의 삶을 마무리 해 나갈까?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 기대가 된다. 6월에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하게 될 나의 모습이 기대된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게요.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5월 한 달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던 중간평가, 아빠 같은 문홍빈 총장님과 김유철 간사님께서 오신다고 하니 행복했다. 중간보고회의 부담보다는 사무국과 안양Y에서 오신다는 설렘과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겠지. 우리 5명 모두 간사님들과 총장님, 국민은행 관계자분이 오시면 다구판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간다며 들떠있었고 오신 후에 너무나 맛있고 좋은 레스토랑도 갔다. 같이 우리가 활동하러 가는 site 옆 바다에도 가서 수다도 떨며 바람도 쐐었다. 필리핀에 와서 못 다한 이야기도 조잘조잘 하며 웃고 떠들었고 찬 음식이 먹고 싶다는 우리를 위해 손수 가져오신 생협 제품들과 한국음식을 보고 행복해 했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던 문홍빈 사무총장님. 안양에서는 바쁘셔서 미처 많은 얘기를 해보지 못했고 이제야 많이 배우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중간평가의 마지막 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고 한국까지 가시는 길 지켜드렸다. 너무 아쉬웠고 속상했다. 이제야 대단하시고 좋으신 분이란 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아쉬웠다. 보내드리고 정동민 간사님과 마음을 나누고 추스르며 5명이 다시 한 번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도 총장님이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싶다. 솔직히 이번 달 에세이는 잘 써지지 않는다. 몇 번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워도 잘 써지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것 또한 나만의 에세이니까 억지로 쥐어짜내며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 이야기는 이만 줄이려 한다...





솔이, Soledad

SOLE



서울에서 혼자 지낼 때 '외로워죽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었다.  
지난 한 달이 그랬다.

공공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풀린 실로 수 놓게 되는 날 이 곳에 모두 털어놓으리.





문홍빈 총장님  
보고싶어요!

